

2019 봄여름호
샘물이야기
발행처 샘물중고등학교

SMCA

SAEMMUL STORY

샘물, 길을 걷다 | 국토순례이모저모 | 봄컨퍼런스 | 샘물5기, 차올라 세상으로 | WCA 연수 | 샘물 가족축제 | 기도제목

백만인을 섬기는 예수제자



인사말 Message

2019년은 참 특별한 해입니다.

10년전 2009년 2월, 분당샘물교회 4층에서 1기 학생들 73명으로 시작된 샘물이, 어느덧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헌신적인 섬김으로 1~5기 졸업생 213명이 세상으로 파송되었고, 교회와 후원자님들의 동역과 헌신으로 10년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 자매결연을 맺은 WCA와는 현재까지 긴밀하게 동역하며, 샘물의 지속가능한 기독교교육의 토대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기 위해, 기독교학교 운동의 확산을 위해 더 힘찬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여는 2019년.

여전히 학교 현장은 성장 가운데 씨름하는 아이들, 다양한 이슈들로 분주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준비 역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 샘물배움공동체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우리가 보고 알기에, 새로운 10년을 두려움이 아닌 벽찬 기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차오르는 교육, 넘쳐흐르는 연구, 세상을 적시는 샘물’을 추진하는 샘물차오름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10년, 더 견고하게 샘물이 세워져갈 것입니다.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섬기는 예수제자를 기르는 샘물의 기독교학교 사역이 흘러 넘쳐 세상을 적시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 총괄교장대행

권문영 드림

2019

샘물, 길을 걷다

전남 신안 증도 생명길

“밀알의 죽음, 생명의 열매, 우리의 여정”



지난 4월22일(월)부터 4월27일(토)까지 샘물의 막내 예비중등(6학년)부터 11학년 학생, 선생님까지 300 여명이 국토순례를 다녀왔습니다.

2019년 '샘물, 길을 걷다'의 주제는 “밀알의 죽음, 생명의 열매, 우리의 여정”입니다. 4박5일 동안 전남 신안 증도와 임자도 약 70km를 걸었습니다. '생명길'로 이름 지은 이 길을 걸으며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순교하셨던 문준경 전도사님의 믿음과 헌신을 묵상했습니다. 비가 오기도 날이 덥기도 때론 바람도 매서웠지만 함께 걸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후배의 짐을 들어주고, 선배가 업어주며, 따뜻한 옷을 양보하고, 서로 먹을 것을 챙기며 걸었습니다. 샘물은 그렇게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 12:24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증도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헌신으로 1930년대부터 복음화되기 시작, 현재도 복음화율이 90%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미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섬 임에도 이 섬에는 사찰, 점집, 풍어제가 없습니다. 1950년 인민군에 의해 순교하신 문준경 전도사님의 헌신이 밀알되어 생명의 열매로 변화됨을 봅니다. 우리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시작으로 그분의 순교터와 묘역, 그분이 기도하셨던 곳과 세우신 교회들, 그

리고 그 분이 전도하려 가셨던 길들(모실길)을 걸었습니다. 둘째 날 방문했던 입자도에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처음 개척한 교회이자 순교자의 교회인 입자진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1950년 일가족 13명을 포함, 48명의 교인이 인민군에 의해 한 번에 순교당했습니다. 입자진리교회는 지금도 순교자의 후손인 이성균 목사님이 시무하시며 순교의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샘물이 걸었던 길

샘물 국토순례의 명칭은 “샘물, 길을 걷다”입니다.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은 “샘물, 예수를 걷다”입니다.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으며 길을 걷는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여기를 걸으며 복상하고 찬양하고 교제합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길 기도하며 걸습니다.

우리는 4박5일 동안 약 70km를 걸었습니다. 유채꽃길과 시골의 나즈막한 산길, 그리고 동네길을 걸었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뺨발을 건너 전도하러 가셨다는 노도까지 난 독길도 걸었습니다. 남도의 땅은 새로운 작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파밭과 청보리밭으로 곳곳이 푸릅니다.



더불어 함께 걷는 길

몸이 아파서 뒤편 친구들도 있었지만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걸었습니다. 무거우면 가방을 들어주고 지치면 천천히 걸어 주었습니다. 학년별로 걷지 않습니다. 조별로 예비중등부터 11학년까지 골고루 섞여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며 갑니다. 선배들은 걷기 힘든 후배들이 없는지 살피고 도우며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2019 국토순례 이모저모

샘보 학생기자들의 눈으로 본 국토순례 짬막 소식입니다

■ 전날의 폭우로 길에 웅덩이가 생기면 신발이 금방 젖어버리기 일쑤. 열심히 웅덩이를 피해다니던 샘물인에게 돌아갈 수도 없을 만큼 큰 웅덩이가 등장했는데, 이때 샘물의 국어선생님 하꿈샘이 나타나 버려진 지푸라기를 이용해 징검다리를 놓아주셨다고. 한 샘물인은 하꿈샘의 다정함에 깊이 감동했다고 전했다.(샘보 공유빈 기자)

■ 함께 걷어가는 국토순례에서 앞뒤에 아무도 없이 혼자 걷는 경험을 해봤다는 11학년의 한 부조장. 조원 친구가 몸이 불편해 뒤로 빠져 같이 걷다가 그 친구가 스타렉스를 타버리는 바람에 홀로 뒤쳐져 그 길을 걸어야 했는데! 함께 걸을 때는 대화에 묻혀 지나갔던 풍경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와 이또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혼자 걸으며 부른 노래가 10곡이 넘었다고.(샘보 박소연 기자)

■ 지친 샘물인들을 위로해주는 국토순례 간식들. 유독 인기 없는 간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오렌지. 걸으면서 까먹기 힘들고 쓰레기처리도 번거로워 먹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그런데 마지막 날 가장 지쳐있던 그 순간, 한 8학년 샘물인이 자신의 오렌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오렌

지를 정성스럽게 까 조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작은 오렌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조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샘보 조우석 기자)

■ 국토순례 셋째 날 저녁, 라면 간식 시간에 진행되는 몰래카메라는 샘물 국토순례의 전통. 올해에도 11학년이 신나게 몰카를 계획했는데... 남학생들은 8-9학년 남자 후배들을 야단치고 여학생들은 라면에 들어있는 스프를 빼고 다시 뚜껑을 닫는, 스프없는 라면으로 깜짝 놀래킬 계획을 세웠다. 라면스프가 없어 당황한 후배들과 선배에게 혼이 나 잔뜩 풀죽은 순진한 후배들을 보고 11학년들, 몰카의 성공을 뿌듯해했다는 후문.(샘보 우수빈 기자)

■ 평발 때문에 한번도 국토순례를 완주하지 못했던 한 샘물인. 선배의 도움으로 열심히 걸었지만 산을 오르는 3일 차 코스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 결국은 스타렉스를 탈 수 밖에 없었다고. 모두들 아쉬워하며 정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학생들, 스타렉스에 탔던 학생이 걸어 올라오는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 마음을 바꿔 완주를 결심한 평발 샘물인, 조원의 응원을 받으며 처음으로 국토순례 완주를 하게 되었다.(샘보 이지호 기자)



샘물고등학교(10~12학년) 봄컨퍼런스
샘물, 어우러지다



샘물중학교(8, 9학년) 봄컨퍼런스
샘물, 땅을 딛다



예비중등, 7학년
마음발 교육



지친 발, 섬기는 손

국토순례 마지막 날에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4박5일 함께 걸었던 아이들 한명 한명의 발을 씻기고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기도해 줍니다. 최고참인 11학년 선배들은 세족식에 쓸 물을 대야에 담아 왔다 갔다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선생님들의 발은 11학년 학생들이 씻겨주었습니다. 섬김이 흘러 갑니다.

봄컨퍼런스

샘물인들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방법
나를 알고, 공동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봄컨퍼런스

봄이 오면 샘물은 나를 알고, 공동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으로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2019년 2월25일(월)~2월28일(목), 예비중등부터 12학년까지 모두 3박4일 일정으로 봄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학년별로 지리산에서, 강화도에서, 학교에서 봄컨퍼런스를 진행하며 책임있는 공동체 일원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샘물에서 학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앞에 있습니다.

1 샘물고등학교 (10~12학년) 봄컨퍼런스 샘물, 어우러지다

봄컨퍼런스를 계기로 진정한 샘물공동체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박4일 동안 예배와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관계를 세우며 팀 프로젝트를 하며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3 예비중등, 7학년 마음밭 교육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자! (고전 5:7, 롬 12:2)”를 주제로 예비중등과 7학년들이 마음밭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샘물인들이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복상(목상), 아침 산행, 공동체 활동, 노동, 자기주도 공부와 자유로운 책읽기, 말씀 읽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의 잘못된 습관을 종이에 적고 태우면서 묵은 누룩을 버리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 샘물중학교 (8, 9학년) 봄컨퍼런스 샘물, 땅을 딛다

오전에는 예배로, 오후에는 샘물의 수업 문화와 생활 문화를 함께 만드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 섬기는 공동체, 선한 청지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네 가지 샘물의 핵심 가치를 우리 샘물인들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가치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잘 스며들어 있을까요? 수업문화, 식사문화, 인사문화, 예배문화, 그리고 언어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잘 했으면 하는 것들을 다 같이 되돌아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받은 섬김을 값없이 흘려 보내는 기독교학교 운동 WCA 연수
한국 9개 기독교학교 교장단,

샘물 5기, 차올라 세상으로!

2019년 2월 9일(토), 샘물 5기 54명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샘물에서의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 세상에서 맞이할 도전에 가슴이 벅칩니다. 졸업하는 학생도, 그리고 오랜 기간 기독교 학부모로 살아오시며 학생과 함께 졸업을 맞이하는 학생의 아버지도 감동과 감사로 계속 눈물이 납니다.

졸업장을 받는 것에 대표는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앞에 나와 졸업장을 받고 총괄이사님, 교장선생님, 교목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 하나하나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를 지켜보는 선생님, 부모님, 학생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단상에 나간 이 학생들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샘물 5기가 백만인을 섬기는 예수제자로 살아가길, 넘쳐흘러 세상을 적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5기 졸업으로 샘물 졸업생은 213명에 이릅니다.



지난 2019년 1월12일(토)부터 2주간, 권문영 총괄교장대행 및 샘물 리더십을 포함한 9개 기독교학교 교장단 13명은 WCA(Westminster Christian Academy)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WCA는 미 대통령상을 수상한 44년 역사의 기독교학교로, 기독교 학교의 뚜렷한 롤 모델이 없었던 한국의 상황에서 샘물 설립 초기부터 학교의 조직 구조와 교육과정, 교사 교육 체계 등에 있어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었던 자매학교입니다.

연수를 다녀오며 그동안 WCA를 통해 샘물이 받은 섬김과 통찰을, 이제 한국의 다른 기독교학교로 흘려 보낼 수 있게 됨에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샘물의 꿈은 넘쳐흘러 세상을 적시는 것인데, WCA 연수를 계기로 샘물의 사

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연수에 함께 했던 9개 학교 리더십들은 이제 각자의 학교로 흩어져 WCA 연수에서 보고 들었던 새로운 시스템을 교직원들과 나누고 각 학교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샘물은 각 학교의 리더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여러 현안에 대한 지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샘물에 부여하신 은혜가 한국 기독교학교 전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명의 한국 기독교학교 리더들을 따뜻하게 환대할 뿐 아니라, 숙소, 라이드, 식사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무엇보다 학교의 모든 부분을 공개하며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WCA 리더십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샘가축

샘물가족축제



5월18일(토), 샘물의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이 모두 모여 2019 샘물 가족축제를 열었습니다. 샘물가족축제는 기획부터 준비, 실행까지 모두 샘사랑(샘물학부모회)이 주관하여 운영되는 행사입니다. 미리 섭외된 학내 가수들이 출연한 복면가왕(최종 우승 가왕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과 운동회, 그리고 로비에 준비된 명랑사진관까지... 작년 은혜관 공사로 한 해를 쉬어 더욱 반가웠던 이날 행사를 위해 이벤트 기획자이자 사회자, 심판이자 행사 진행요원, 주차요원 이자 사진사와 아이스크림 아저씨^^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셨던 우리 샘사랑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샘물배움공동체 기도제목

- 01 샘물인, 학부모와 교직원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 거룩한 생활문화와 수업문화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샘물배움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 02 진로진학을 준비하는 12학년과 졸업생들이 더위에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 03 샘물학교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샘물차오름캠페인을 통하여, 새로운 10년을 위한 샘물의 사명, "샘물, 넘쳐흘러서 세상을 적시다"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게 하소서.
- 04 더샘물학교와 해외선교캠퍼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더샘물학교에 은혜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고, 해외선교캠퍼스를 통하여 해외이동수업, 선교, 기독교학교운동 해외확산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 05 리더십전환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 06 국회가 속히 정상화 되어, '대안교육에 관한 법안'이 순적하게 통과되게 하소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가 속히 제정되게 하소서.

주/요/일/정 Schedule

1 더샘물캠프(부제 "성경의 안경을 쓰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요!")

7월 캠프

7/29(월) 저학년(7세~3학년)
7/30(화) 고학년(4학년~중1)

8월 캠프

8/24(토) 7세 ~ 중1

2 샘물중고등학교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본교)

일시 2019년 9월 7일(토) 오전 11시
장소 샘물중고등학교 샘물관 4층 인대옥홀
문의 031-714-7091, www.smca.or.kr